



08-21 (통권 299호)

200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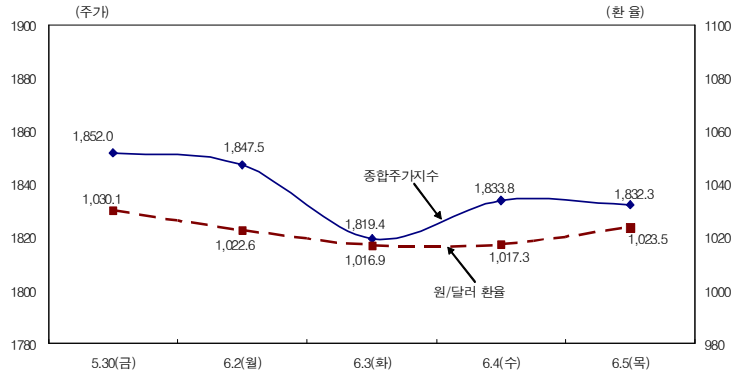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아일랜드 경제로부터 배우는 교훈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5.30~6.5)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아일랜드 경제로부터 배우는 교훈	1
주간 경제 동향	14
□ 실물 부문 : 경기지수 하락세 지속	14
□ 금융 부문 : 원화 환율의 급등락	1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 거 시 경 제 실 : 임 희 정 연 구 위 원 (3669-4031 limhj9@hri.co.kr)

Executive Summary

□ 아일랜드 경제로부터 배우는 교훈

1. 문제 제기

지난 10여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유럽 경제 성장의 모범 사례로 불린 아일랜드 경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아일랜드 경제는 1995~2000년 기간 중 평균 9.7%, 2001~2005년 5.2% 등 고도성장을 지속하였고 2006년 이후에도 성장률은 5.5% 내외를 기록하여 외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분기별 추이를 보면, 성장률이 한 단계 하락하는 조짐이 보인다. 특히, 이와 같은 성장률 저하는 경기 순환 주기상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의 훼손에 의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 성장 잠재력 저하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2. 아일랜드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 여부 진단

1) 아일랜드 경제의 현황

(경제 성장 추이) 아일랜드는 1995년~2000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9.7%의 고성장을 보였다. 2001~2005년 기간 중에는 유럽 지역의 성장률이 1.4%로 전반적으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2006년 이후에도 성장률은 평균 5.5%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1995년 18,636달러에서 2007년에는 59,924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다.

(시기별 성장 특성) 아일랜드 경제는 1997~2000년의 기간에는 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율이 30.7%에 달하여 투자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보였고, 2001~2005년의 기간에도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였으나, 순수출도 기여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율이 0.7%로 급락하면서 구조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아일랜드 경제는 장기간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 기반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여 경제 성장이 과도하게 투자 의존적이었는데, 투자가 급락하면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율이 45.5%로 급등하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2) 성장회계 분석 (1995~2005년)

(전산업 분석) 1기 (1995~2000년)는 노동 32.1%, 자본 46.8%, 총요소생산성 21.1%의 기여율로 균형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바람직한 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다. 2기 (2001~2005년)는 자본 기여율은 60%를 초과하고 있으나 총요소생산성은 11.3%로 하락하여 생산성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과잉 투자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기의 정보통신(ICT) 부문의 자본투입 기여율이 1기에 비해 크게 하락함으로써 총요소생산

성 저하가 3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경제의 효율성 제고 노력 부진은 아일랜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산업별 분석) 1기는 전기 및 광학기기, 통신업, 제조업, 도소매업, 그리고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요소별 보면 동산업의 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이 성장의 중심이었다. 2기에 성장을 주도한 산업은 금융 및 사업서비스였다.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은 1기 노동과 자본 주도의 성장에서 2기에는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제조업, 도소매업은 2기에 들면서 과잉 자본 투자와 이로 인한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하락 현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과잉 자본 투자는 2006년 이후 총고정자본형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성장 잠재력 훼손 여부 진단

아일랜드 경제는 경제 국면 상 침체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성장률은 5.3%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분기별 성장률은 1/4분기에만 반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2/4분기부터는 급속도로 침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성장률 저하는 경기 순환 주기상의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 잠재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잠재 성장률의 하락은 2001~2005년 기간 중 생산성 제고가 수반되지 않는 과잉 투자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경제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성장 견인 능력이 제고되지 못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 성장 잠재력 훼손의 원인

(과잉 자본 투자와 이로 인한 경제 효율성 저하) 2001년 이후 경제 효율성 제고를 수반하지 않는 과잉 자본 투자가 성장 잠재력 저하의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보통신 부문 투자가 저조해지면서 이것이 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는 성장하지만 대부분이 순수출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분배로의 사회 연대 협약 방향 전환) 아일랜드의 사회연대협약은 1차 ~ 3차까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 중심의 협약이었으나, 4차 이후에는 분배, 실업해소 등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이런 분배 중심의 협약이 성장 동력을 저하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2006년 이후에 나타나는 정부 소비의 급격한 상승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비용 측면의 경쟁력 훼손) 아일랜드는 경제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경쟁력 원천 상실하였다. 주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 비용이 경쟁력의 원천이었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주요 성장 요

인이 사라지고 있다. 한편, 주택가격 상승은 연쇄적으로 임대비용 상승 등으로 이어져 비용 측면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감소) 아일랜드 경제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하나였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아일랜드는 경제 개발 초기 낮은 인건비,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 영어 소통 능력,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유럽 기업들의 직접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인건비의 급등, 분배로의 정책 전환 등으로 여타 유럽국가와의 차별적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2003년까지 유입이 지속되던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04년부터는 투자 철수(순유출)로 전환되었다.

4. 아일랜드 경제로부터 배우는 교훈

첫째,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아일랜드는 국민소득이 20,000달러를 갓 넘어선 1997년부터 분배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했으며, 이것이 2000년대 이후 성장 잠재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단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크게 훼손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지속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속 성장 전략은 정부와 국민간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내·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아일랜드 성장의 주요 동력은 투자 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 직접 투자에 있었다. 우리나라도 사회연대협약, 외국인 특구 조성, 각종 투자관련 규제 개선, 조속한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하여 내·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늘려 나가야 한다.

셋째, 금융 및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을 신성장동력화 해야한다. 아일랜드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도 성장기 이후 성장을 견인한 업종은 금융 및 사업서비스 업종이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 교육·의료 등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등으로 서비스업 성장이 지체되어 왔다.

넷째, 제조업 분야의 첨단화·효율화 등을 통한 경쟁력 유지 정책이 필요하다. 아일랜드의 최근 성장 둔화는 총고정자본형성의 부진에 있으며, 이는 2000년대 이후의 제조업 분야의 효율성 제고가 수반되지 않은 과잉 투자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내수를 육성하여 경기 방어능력을 높여야 한다. 아일랜드 경제는 10여년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투자 부진에 따른 내수 침체를 소비가 보완하지 못하고 순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기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근 경기 현황과도 유사하다.

< 아일랜드 경제로부터 배우는 교훈 >

아일랜드 성장 추이	1995 ~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률 9.7% •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고른 성장 견인 • 성장동력 산업 : 광학기기, 통신업, 제조업
	2001 ~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률 5.2% • 효율성 제고를 수반하지 않는 과잉 투자 • 성장동력 산업 : 금융 및 사업서비스
	2006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률 5.5% • 극심한 투자 부진, 내수의 경기 방어 능력 약화 속 순수출 주도의 불균형적 경제 성장
성장 잠재력 저하	원인 1 : 효율성 제고를 수반하지 않는 과잉 자본 투자	
	원인 2 : 분배로의 사회 연대 협약 방향 전환	
	원인 3 : 노동 및 임대 비용 등 비용 측면 경쟁력 상실	
	원인 4 : 외국인 직접 투자의 순수출	
시 사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 • 내·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 환경 개선 • 금융 및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 신성장동력화 • 제조업의 첨단화 및 효율화 통해 경쟁력 유지 • 내수 육성을 통한 경기 방어 능력 배양 	

1. 문제 제기

- **지난 10여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유럽 경제 성장의 모범 사례로 불린 아일랜드 경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 아일랜드 경제는 1995~2000년 기간 중 평균 9.7%, 2001~2005년 5.2% 등 고도성장을 지속했음
 - 2006년 이후에도 성장률은 5.5% 내외를 기록하여 외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임
 - 그러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성장률이 한 단계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이와 같은 성장률 저하는 경제 사이클상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의 훼손에 의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성장 시기별 경제성장률 >

(단위: %, 억불)

	1기 ('95~'00년)	2기('01~'05년)	3기 ('06~'07년)
아일랜드	9.7	5.2	5.5

자료 : 1) World Bank, WDI 2008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8.

- **이에 따라, 아일랜드 성장 잠재력 저하 상황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아일랜드의 경제 성장을 크게 3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 제 1 기는 1995~2000년의 기간으로 고도성장을 기록했으며
 - 제 2 기는 2001~2005년으로 성장률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성장을 유지하였음
 - 제 3 기는 2006년 이후로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성장 잠재력 약화가 가시화되는 시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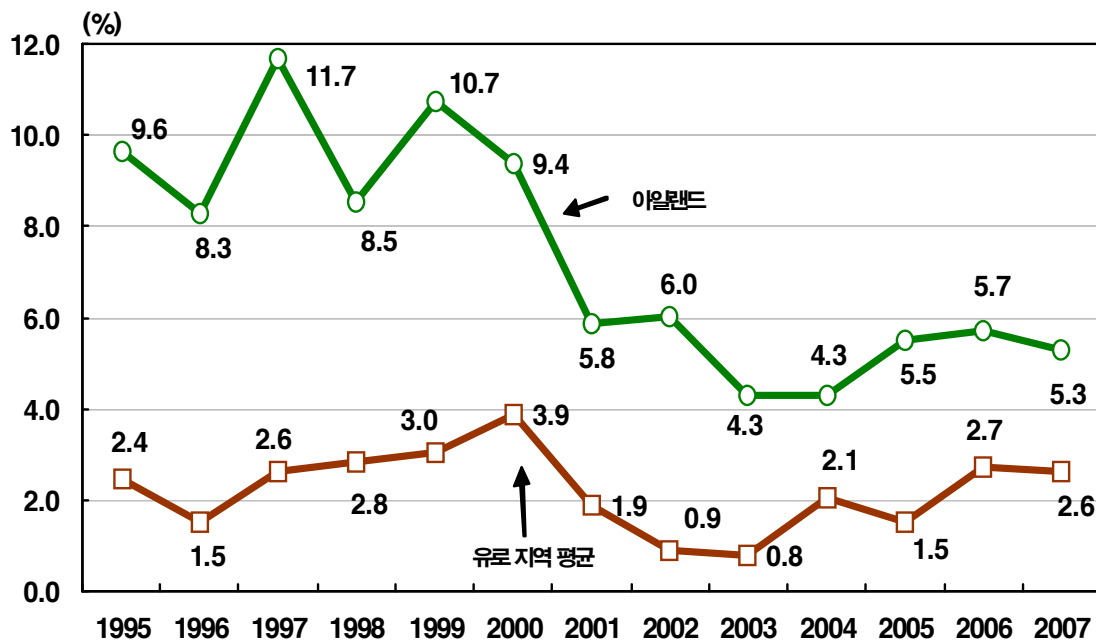
2. 아일랜드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 여부 진단

1) 아일랜드 경제의 현황

○ 경제 성장 추이

- 아일랜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1995년~2000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9.7%의 고성장을 보였으며, 이후에도 성장률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5% 내외의 성장을 기록해왔음
- 아일랜드는 1995~2000년 기간 중 연평균 9.7%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동기간 유럽의 평균 성장률(2.7%)을 훨씬 상회하였고
- 2001~2005년 기간 중에는 유럽 지역의 성장률(1.4%)이 전반적으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경제성장률 5.2%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들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06년 이후에도 성장률은 평균 5.5%에 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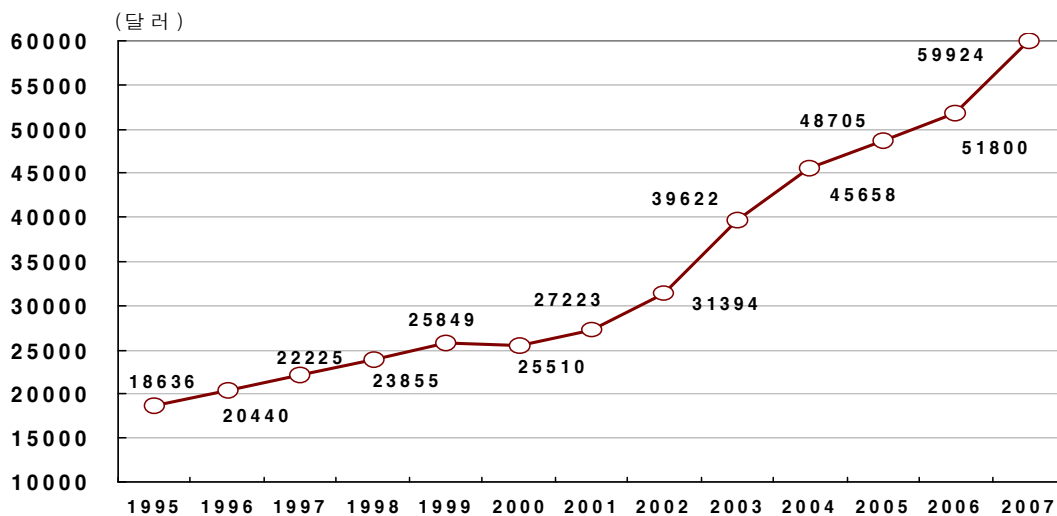
< GDP 증가율 추이(1995-2007) >



자료 : 1) World Bank, WDI 2008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8.

-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가까웠던 1995~2000년 기간 중에 꾸준히 증가하였고
 - 성장률이 하락한 2001년 이후에도 급속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5만 9,924 달러에 이르고 있음

< 1인당 GDP 증가율 추이(1995-2007)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8.

- 그러나, 최근의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2006년 4분기부터 성장률의 급격한 저하 현상이 나타남
 - 2007년 연간 성장률은 1분기에 5.8%에 달하는 등 높은 성장률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 2분기부터는 다시 크게 낮아지고 있음

< 아일랜드 및 EU-27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전기대비 증가율)

	'06년 1분기	'06년 2분기	'06년 3분기	'06년 4분기	'07년 1분기	'07년 2분기	'07년 3분기
아일랜드 (%)	2.5	0.8	3.1	-1.6	5.8	-1.5	1.4
EU-27 (%)	0.9	1.0	0.7	0.9	0.8	0.5	0.8

자료 : Eurostat

○ 시기별 성장 특성

- 아일랜드 경제는 1997~2005년 기간 중 투자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보여 왔음
 - 1997~2000년의 기간에는 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율이 30.7%에 달하여 투자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보였음
 - 2001~2005년의 기간에도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였으나, 순수출도 기여율이 증가했음

-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율이 0.7%로 하락하면서 구조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10여년에 걸친 장기간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 기반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여 경제 성장이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음
 - 반면, 순수출의 성장 기여율이 45.5%로 급등하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투자가 극도로 부진해지면서 순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외화내빈 양상이 나타남

< GDP 증가율 및 국민계정 요소별 기여도, 기여율 추이 >

(단위: %p, %)

	GDP	소비		총고정자본 형성	순수출
		개인	정부		
1997~2000년	9.6	4.3 (44.2)	1.0 (10.6)	3.0 (30.7)	1.4 (14.2)
2001~2005년	5.2	2.2 (42.0)	0.5 (9.6)	1.7 (32.2)	0.8 (15.7)
2006~2007년	5.5	2.6 (49.0)	0.9 (18.0)	0.0 (0.7)	2.4 (45.5)

자료 : 아일랜드 통계청

주 : ()는 기여율

2) 성장회계 분석 (1995~2005년)

○ 전산업 분석

- 1기 (1995~2000년) :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이 균형적으로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바람직한 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총부가가치 증가율에 대한 노동 기여율 32.1%, 자본 기여율 46.8%, 총요소 생산성은 21.1%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
- 2기 (2001~2005년) : 자본 기여율은 60%를 초과하고 있으나 총요소생산성은 11.3%로 하락하여 생산성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과잉 투자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노동 기여율이 27.4%로 1기에 비해 4.7%p 감소하였고
 - 총요소생산성의 총부가가치 증가율에 대한 기여율은 이전 21.1%에서 11.3%로 오히려 낮아져 아일랜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의구심을 들게 함

< 전산업의 총부가가치 증가율 및 요소별 기여율 추이 >

	1기(1995~2000년)				2기(2000~2005년)			
	총부가가치	노동	자본	TFP	총부가가치	노동	자본	TFP
증가율/기여율	9.7	32.1	46.8	21.1	5.6	27.4	61.1	11.3

자료 : EU KLEMS

주 1 : 공공부문은 제외

2 : 총부가가치는 증가율, 노동, 자본, TFP는 총부가가치 증가율에 대한 기여율

- 특히, 자본 투입 부문을 정보통신 자본 투입과 비정보통신 자본 투입으로 구분해 볼 때, 2000년대 들어서는 정보통신 자본 투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분석의 기간이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 투자 주도의 성장과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 아일랜드의 낮은 정보통신 투자로 인하여 총요소생산성(TFP)의 총부가가치 증가율에 대한 기여율이 하락하게 된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됨
- 2기의 정보통신(ICT) 부문의 총부가가치 증가율에 대한 자본 기여율이 1기에 비해 크게 하락함으로써 총요소생산성 저하가 3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이와 같은 경제의 효율성 제고 노력 부진은 아일랜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 전산업의 정보통신 및 비정보통신 부문의 자본 기여율 추이 >

	1995~2000년		2000~2005년	
	정보통신	비정보통신	정보통신	비정보통신
기여율	8.5	38.3	2.7	58.4

자료 : EU KLEMS

주 : 자본 기여율은 총부가가치 증가율에 대한 기여율

○ 산업별 분석

- 1기는 전기 및 광학기기, 통신업, 제조업, 도소매업, 그리고 금융 및 사업 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투입 요소별 보면 동산업의 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이 성장의 중심이었음
- 2기에 성장을 주도한 산업은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은 1기 노동과 자본 주도의 성장에서 2기에는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되었음
- 제조업, 도소매업은 2기에 들면서 과잉 자본 투자와 이로 인한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하락 현상을 보임
 - 이와 같은 과잉 자본 투자는 2006년 이후 총고정자본형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총부가가치 증가율 및 요소별 기여율 추이 >

구	분	1995~2000년				2000~2005년			
		총부가가치	노동	자본	TFP	총부가가치	노동	자본	TFP
전기 및 광학기기, 통신업		18.7	20.8	36.1	43.1	5.5	-3.3	66.2	37.1
제조업(전기기기 제외)		11.0	8.1	56.1	35.8	4.4	1.6	127.8	-29.5
기타 제조업		5.3	89.7	17.0	-6.7	4.7	84.6	20.4	-5.0
도소매업		8.5	52.6	42.1	5.3	2.5	57.9	109.3	-67.2
금융 및 사업서비스		8.3	53.3	56.2	-9.5	9.8	22.1	22.7	55.2
개인 및 공공 서비스		5.5	50.7	87.7	-39.2	5.7	42.6	58.3	-4.1

자료 : EU KLEMS

주 : 1) 총부가가치는 증가율 2) 노동, 자본, TFP는 총부가가치 증가율에 대한 기여율

- 정보통신과 비정보통신 부문으로 구분해 본 자본 기여율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비정보통신 부문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기로 접어들면서 기타 제조업,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비정보통신 부문이 두드러지게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정보통신 부문 투자 부진이 총요소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됨

< 정보통신 및 비정보통신 부문의 자본 기여율 추이 >

구	분	1995~2000년		2000~2005년	
		정보통신	비정보통신	정보통신	비정보통신
전기 및 광학기기, 통신업		5.7	30.4	-0.6	66.7
제조업(전기기기 제외)		8.5	47.6	3.9	124.0
기타 제조업		2.9	14.0	1.8	18.7
도소매업		9.8	32.3	9.7	99.6
금융 및 사업서비스		11.6	44.7	0.7	22.0
개인 및 공공 서비스		25.2	62.5	6.9	51.3

자료 : EU KLEMS

주 : 자본 기여율은 총부가가치 증가율에 대한 기여율

3) 성장 잠재력 훼손 여부 진단

- 아일랜드 경제는 경제 국면 상 침체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2007년 성장률은 5.3%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 분기별 성장률은 1/4분기에만 반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 2/4분기부터는 급속도로 침체되는 양상을 보임

- 이와 같은 성장률 저하는 경기 순환 주기상의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 잠재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잠재 성장률의 하락은 2001~2005년 기간 중 생산성 제고가 수반되지 않는 과잉 투자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이며
 - 또한, 경제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성장 견인 능력이 제고되지 못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원인을 찾을 수 있음

3. 성장 잠재력 훼손의 원인

○ 과잉 자본 투자와 이로 인한 경제 효율성 저하

- 2001년 이후 경제 효율성 제고를 수반하지 않는 과잉 자본 투자가 성장 잠재력 저하의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정보통신 부문 투자가 저조해지면서 이것이 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이와 같은 과잉 투자는 2006년 이후 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도가 0%대로 급락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경제 성장의 투자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소비의 경기 방어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임
 - 이에 따라 경제는 성장하지만 대부분이 순수출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패턴이 나타남

○ 분배로의 사회 연대 협약 방향 전환

- 아일랜드의 사회연대협약은 1차~3차까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 중심의 협약이었으나, 4차 이후에는 분배, 실업해소 등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음
 - 초기에는 정부, 노동자, 사용자, 농민, 비영리단체 등 5개 부문에서 각각 5명씩 25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 4차 이후로는 전국실업자조합, 종교협회, 전국여성협회 등이 새로운 협상자로 참여하여 분배 쪽의 목소리가 커졌음

- 이런 분배 중심의 협약이 성장 동력을 저하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특히 2006년 이후에 나타나는 정부 소비의 급격한 상승이 이를 반증하고 있음

< 아일랜드의 시기별 사회연대협약 >

기간	사회연대협약	주요내용
1차 '87 ~'90	국가회복협약 (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	- 3년간 임금인상 2.5%이내 제한 - 공무원 신규채용 동결과 조기 퇴직제
2차 '91 ~'93	경제사회발전협약 (Programme for Economic and Social Process)	- 2만개 일자리 창출 및 실직자대책 - 근로자경영 참여에 노·사 합의
3차 '94 ~'96	경쟁력 강화와 고용에 대한 협약 (Programme for Competitiveness and Work)	- 기업경쟁력 강화 - 3년간 임금인상 8%이내 제한
4차 '97 ~'99	파트너십 2000 (Partnership 2000)	- 통합과 고용 등 분배에 무게 - 장기 실직자에 대한 조치
5차 '00 ~'02	공평한 번영을 위한 협약 (Programme for Prosperity and Fairness)	- 정부 3년간 25% 조세 감면 약속 - 3년간 임금인상 15%이내 제한
6차 '03 ~'05	지속적인 전진 (Sustaining Progress)	- 10개 거시 정책이행목표 - 최초18개월 7% 임금인상
7차 '06 ~	2016년을 향한 사회연대협약 10년 계획	- 27개월간 단계적으로 인금 10% 인상

○ 비용 측면의 경쟁력 훼손

- 아일랜드는 경제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경쟁력 원천 상실
 - 주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 비용이 경쟁력의 원천이었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주요 성장 요인이 사라지고 있음

< 단위 노동 비용 추이 >

(단위 : 유로/시간)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3분기
아일랜드	11.82	13.16	14.54	15.30	15.99	17.13	17.49	18.48

자료 : 아일랜드 통계청

- 특히, 최근에도 아일랜드는 EA-13 국가보다 여전히 높은 임금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 최근 현황인 3기의 분기별 임금 증가율을 보면, 아일랜드의 분기별 단위 노동 비용 상승률은 EA-13 평균 보다 전 구간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음

< 노동 임금의 분기별 증가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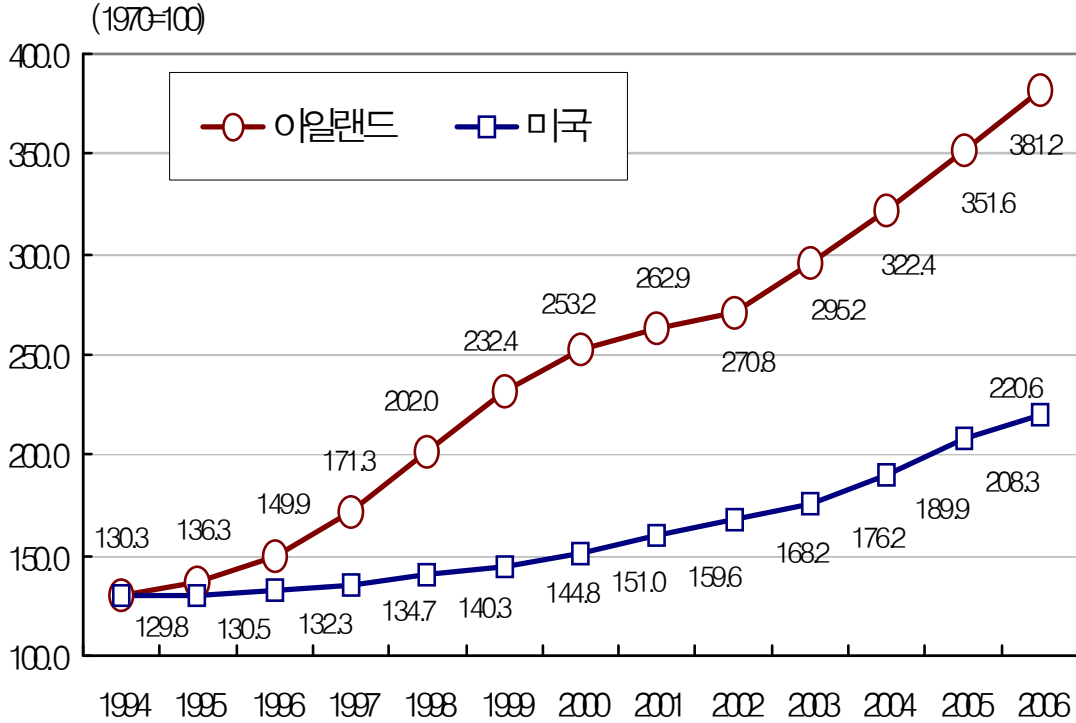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6년				200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아일랜드	3.5	4.3	4.7	5.1	5.2	4.2	-
EA-13	2.6	2.8	2.6	2.3	2.3	2.4	2.5

자료 : eurostat

- 아일랜드는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주거 및 임대 측면의 비용 상승을 초래했음
 - 미국 주택가격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임
 - 한편, 주택가격 상승은 연쇄적으로 임대비용 상승 등으로 이어져 기업 비용 증가에 영향을 끼쳐 투자 감소로 이어짐

< 아일랜드 및 미국 주택가격 추이 >



자료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Real House Price Data

○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감소

- 아일랜드 경제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하나였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 추세로 돌아섬

- 아일랜드는 경제 개발 초기 낮은 인건비,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 영어 소통 능력,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유럽 기업들의 직접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음
- 그러나, 인건비의 급등, 분배로의 정책 전환 등으로 여타 유럽국가와의 차별적 경쟁력을 상실하였음
- 이에 따라 2003년까지 꾸준히 유입되었던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04년부터는 투자 철수로 전환됨
- 외국인 직접 투자는 GDP 대비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

< 외국인 직접 투자 추이 >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투자(억불)	88.6	182.1	257.8	96.5	293.5	228	-106.1	-311.1	128.2
GDP 대비 비중(%)	10.0	18.8	26.7	9.2	23.9	14.5	-5.7	-15.5	5.8

자료 : OECD Factbook 2008

- 분기별로 보면, 외국인 직접 투자의 이탈 현상이 자세히 드러남
 - 2006년 1/4분기부터 2007년 3/4분기까지의 기간 중 2분기를 제외하고 모두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현상이 나타남

< 외국인 직접 투자액 추이 >

(단위 : 백만 유로)

구 분	2006년				200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아일랜드	-3,855	-7,991	5,531	-6,177	3,654	-3,554	-2,190

자료 : eurostat

4. 아일랜드 경제로부터 배우는 교훈

- 첫째,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
 - 아일랜드는 국민소득이 20,000달러를 갓 넘어선 1997년부터 분배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했으며
 - 이것이 2000년대 이후 성장 잠재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단초가 됨
 -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크게 훼손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지속 성장을 추구해야 하고, 이러한 지속 성장 전략은 정부와 국민간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함

- 둘째, 내·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 환경 개선이 시급함
 - 아일랜드 성장의 주요 동력은 투자 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 직접 투자에 있었음
 - 우리나라도 사회연대협약, 외국인 특구 조성, 각종 투자관련 규제 개선, 조속한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하여 내·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늘려 나가야 함

- 셋째, 금융 및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을 신성장동력화 해야함
 - 아일랜드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도 성장기 이후 성장을 견인한 업종은 금융 및 사업서비스 업종이었음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 교육·의료 등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등으로 서비스업 성장이 지체되어 왔음

- 넷째, 제조업 분야의 첨단화·효율화 등을 통한 경쟁력 유지 정책이 필요함
 - 아일랜드의 최근 성장 둔화는 총고정자본형성의 부진에 있으며,
 - 이는 2000년대 이후의 효율성 제고가 수반되지 않은 과잉 투자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다섯째, 내수를 육성하여 경기 방어능력을 높여야 함
 - 아일랜드 경제는 10여년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음
 - 이에 따라 투자 부진에 따른 내수 침체를 소비가 보완하지 못하고 순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기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의 최근 경기 현황과도 유사함

임희정 연구위원 (3669-4031, limhj9@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경기지수 하락세 지속

○ 4월 중 산업생산이 광공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경기종합지수가 동반 하락하고 있어 경기 급랭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 4월 광공업 생산은 전기장비, 음식료품, 선박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0.5%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생산은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5.9% 증가함
- 소비재판매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와 식료품, 의약품 등 비내구재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추계는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의 투자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함
- 현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하락하고,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대비 0.6%p 하락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가	3/4	4/4	1/4	2월	3월	4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7(0.7)	-	-	-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2.9	4.4	5.8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0.9	-1.9	0.9	-2.0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6.2	5.3	-2.5
		수출	14.4	14.1	9.4	18.2	17.5	18.8	18.6	27.0
공급	광공업생산	8.3	6.8	6.0	11.0	10.5	10.2	10.1	10.5	
	취업자수 (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288	2,331	2,449	
	실업률 (%)	3.5	3.2	3.1	3.0	3.4	3.5	3.4	3.2	
	수입	18.4	15.3	7.3	25.9	28.2	27.6	25.9	23.7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54	60	44	32	-52	-24	-1	-	
	무역수지 (억\$)	161	146	45	27	-59	-12	-7	0	
물가	소비자물가	2.2	2.5	2.3	3.3	3.8	3.6	3.9	4.1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원화 환율의 급등락

○ (해외 금융 시장) 금리, 투자은행 신용등급 하향 조정 영향으로 하락

- 금리: S&P사의 주요투자은행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전주말 대비 하락 (국채 10년물 : 4.06→3.98%)
- 환율: 달러화는 달러화 가치 하락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미 연방은행 의장의 발언으로 유로화에 대폭 강세를 보였고, 엔화에 대해서는 약보합을 시현 (\$/€ : 1.5554→1.5440, ¥/\$: 105.51→105.23)

○ (국내 금융 시장) 원화 환율 변동폭 확대

- 주가: 글로벌 신용위기 재부각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주가지수선물 순매도에 따른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 출회 등의 영향으로 전주말대비 하락 (1,852.0→1,832.3)
- 금리: 5월 소비자 물가 급등의 영향으로 채권매수세가 위축되면서 5.54%까지 상승하였으나, 단기금등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과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여 전주말 대비 보합 (국고채 3년 수익률, 5.46→5.48%)
- 환율: 주초반 외환당국의 물가 안정 위주의 환율정책 강화 기대감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은행들의 NDF 매입포지션 한도 위반 규제 강화 방안 등에 따라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나 주말 대비 하락 (1,030.10→1,023.50)

○ (전망) 경기 및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주가의 보합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008		
		4/4	1/4	2/4	3/4	4/4	1/4	5.30	6.5 ¹⁾
국내	거래소 주가	1,434.5	1,452.5	1,743.6	1,946.5	1,897.1	1,703.9	1,852.0	1,832.3
	국고채3년(%)	4.92	4.76	5.26	5.46	5.74	5.10	5.46	5.48
	원/달러	929.8	940.9	923.8	915.1	936.1	990.4	1,030.1	1,023.5
해외	DOW	12,463	12,354	13,409	13,896	13,265	12,263	12,638	12,390
	Nikkei	17,226	17,288	18,138	16,786	15,308	12,526	14,339	14,436
	미국채10년(%)	4.70	4.57	5.02	4.59	4.02	3.41	4.06	4.08
	일국채10년(%)	1.69	1.60	1.88	1.69	1.51	1.29	1.76	1.76
	달러/유로	1.3199	1.3354	1.3542	1.4267	1.4593	1.5788	1.5554	1.5440
	엔/달러	119.07	117.83	123.18	114.80	111.65	99.70	105.51	105.23
	두바이(\$/바렐)	56.71	63.12	66.42	76.64	89.06	97.66	120.01	118.99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6.5) 기준